

#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ckk@yahoo.co.kr, 614-961-0980)  
 총회장: 이봉모 바오로 (614-766-1990) 부회장: 최영자 레지나 (614-855-2167)

## 본당 소식

- ◆ 6월은 예수성심 성월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닦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인지 되돌아보는 복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콜럼버스 교구 2008년 재정 세미나
  - 일시: 6월 9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St. Brigid of Kildare Parish
  - \* 우리 공동체에서 신부님, 부회장, 재정위원, 총무가 참석합니다.
- ◆ 친교 준비 봉사자
  - 6월 8일: 이수호
  - 6월 15일: 김성애
- ◆ 6월 친교 후 봉사: 정하상 구역
- ◆ 미사 후 성당 출입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성스러운 미사 전례에 있어 복장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반바지, 슬리퍼 등 삼가)

-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신청하실 부모님께서서는 최규선 루치아노 형제님(614-302-3708)에게 문의하십시오.
- ◆ 매월 셋째 주 미사 후 병자 봉성체가 있습니다.
- ◆ 2008년 BAA (Bishop's Annual Appeal) 모금에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BAA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6,427이며 5월말까지 모금액은 \$2,920입니다.
  - 참여하실 분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일 헌금	\$441.00
교무금	\$1,870.00

- 교무금: 최준기 한석철 최규선 정동완 권혁제 장이석 임상순 김미정 권오경 박귀영 이진학



#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the Diocese of Columbus

기도하고 일하라

연중 제10주일 June 8, 2008



<마태오를 부르는 예수>

카라바조 (1571-1610), 유화, 성 루이지 데이 프란치스코 교회, 로마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호세아서 6,3-6

“내가 반기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신의다.”

화답송



제 2 독서 로마서 4,18-25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더욱 굳세어져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9,9-13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1,445단 12명
이호영	3단 명	8,538단 74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50단 명	6,495단 68명
김효임	100단 명	1,171단 29명
학생 구역	단 명	10단 2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153단 4명	2/22/04-6/1/08 (223주)

♣ 총누계: 197,538단 12,674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 봉사자 안내

	6월 8일	6월 15일
해설자	신현태	곽광주
독서/봉헌	최준기 김용선 정하상 구역	이호영 구역
보편지향 기도	십자가의 모후	평화의 모후

## 오늘의 성가

♫ 입당: 329      ♫ 봉헌: 211  
♫ 성체: 172 179      ♫ 파견: 205

## 생명의 말씀

###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변종찬 마태오 신부, 서울대교구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세금을 걷는 직업을 갖고 있던 마태오를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시어 “나를 따라라” 하고 초대하십니다. 이제껏 그 누구도 따뜻한 말 한 마디 건네주지 않고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소외되었던 마태오, 세관이 삶의 모든 것이라는 체념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했던 마태오, 자신은 하느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비참한 인간이라고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야 했던 마태오, 이러한 그에게 다가온 하느님의 초대였기에 그 기쁨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마태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라갑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부활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이제껏 마태오의 상태는 죽은 상태, 곧 생명이 없고 어둠만이 있던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그는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복음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다른 이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리사이들은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마태 9,12).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사이들을 튼튼한 이들로, 세리와 죄인들은 병든 이들로 비유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도와 주기 위해, 치유하시기 위해 그리고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지만 단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사이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자처했지만, 이러한 판단은 인간적인 것이지만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사이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마태 9,13). 오늘 제1독서에도 나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성실한 회개에 대해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외적 행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 자세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타인에 대한 자비로움으로, 겸손함으로 그리고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께 바치는 제사가 그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치는 이의 마음이 하느님의 눈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느님은, 오늘 제2독서에서 나타나듯,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며 희망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마태 11,29)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 울려 퍼집니다. 그 누구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자처하면서 타인을 단죄하지 말고, 오히려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곁에 머물도록 합시다.